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힘 실어준다

전춘성 진안군수, 고향사랑기부 동참

무주군,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지역 소상공인 대상 신청 접수

무주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으로 힘을 실어준다.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복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 대출을 해줌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포스터

무주군에 따르면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때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다.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고 3,000만 원과 최대 5% 이자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군 출연금도 지난해 1억 원에서 올해는 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복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063-433-8403)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정오)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신용심사 기준 전 등급 확대와 출연금 확대 등 지원을 늘렸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동부권 5개 시·군에 기부금 기탁

전춘성 진안군수는 30일 전북 동부권 5개 시·군인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진안군을 포함한 동부권 6개 시·군은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모색해 전북 동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춘성 군수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6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전 군수는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오고 있는 동부권 시·군에 전북도민과 출연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진안군을 비롯한 동부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지방

/진안=우태만 기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 '맞손'

장수군-장수군산림조합,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30일 장수군산림조합과 '2023년 숲가꾸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최훈식 군수와 한상대 산림조합장, 산림공원과 및 산림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후 건의사항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산주 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사업발주 및 시행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을 지역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은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감독역할을 하며 산림법인만 입찰·시공하는 방식이다.

장수군은 올해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숲 가꾸기(아린나무가꾸기) 200ha, 3억여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영세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조합과 법인의 역할을 나눠 산림사업 경쟁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수군 산림경영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림을 가꾸고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장수군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30일 장수군산림조합과 '2023년 숲가꾸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무주군,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지역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2023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내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청년 창업가의 점포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무주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군은 청년 가게 10개소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각각 지원해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년~4년 이

내인 만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가 대상이다.

희망자는 27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비롯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 이수실적이 많은 대상자는 배점이 높으며, 현지 실사후 청년정책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가 같을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와 납부세액이 낮은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계자 간담회 열어

진안군은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가대표 3명, 진안군 농민회, 진안군 가족센터, 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2023년 상반기 운영을 위한 근로자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하는 사업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신청 농가에 배정하여 원하는

기간에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안군은 2022년 필리핀,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15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119농가 395명을 배정받아 지자체 간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으로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돼 필리핀 MOU를 통해 5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4월경부터 개별농가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장수군이 봄철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2023년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산불조심 기간(2.1~5.15)과 지역 기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부터 6월 10일까지 산불진화인력 81명(군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7명, 읍면 산불감시원 44명)을 선발해 산불방지 체계에 돌입한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감시원은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산불 진화 및 뒷받 감시, 산지 정화, 입산 통제구역 입산 방지 등 각종 산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불 취약지 점검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확산을 막고자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진리북도 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교육생 연장 모집

무주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교를 희망하면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명서류와 함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최종 입교 세대는 농업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농업·농촌분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3~12월)을 운영하고 있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원에 시설하우스 1동과 바셋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 귀촌 귀촌 정착 실용 교육 및 농업경제·경영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